

미 수은 경쟁력 보고서 시사점 정리

(2017. 7. 21)

워싱턴 사무소

미 수은법에 의거, 동 수출신용 경쟁력 보고서는 G-7 포함 타 수출 신용 기관들과 미 수은과의 수출신용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 금년 미 수은 경쟁력 보고서는 작년의 예외적인 영업 상황*으로, 타 기관과의 섹터별 직접 비교보다는 중장기 금융 관련 타 기관의 실질적 운영 방식, 비교를 위한 참조 포인트 확립에 초점

*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3인) 부족으로 10백만 달러, 7년 이상의 거액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약 300조 달러의 사업 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

○ 주요 검토사항으로 1) 중장기 금융 지원에 활발했던 경쟁기관 연구
2) 아시아 ECA를 포함한 기관들의 2016년 신규 프로그램 및 상품,
3) 향후 영업 정상화시 미 수은의 변화 포인트 등

□ 근래 두드러진 ECA 금융 환경의 변화로는 1) 중국 ECA 기관의 부상과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부채 위기를 들 수 있음

○ 중국 ECA들은 공격적인 수출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고, 정부 역시 동 ECA들의 Mandate에 “일대일로”와 같은 광범위한 정책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

* 중국 ECA(Sinosure, China EXIM)는 전 세계 중장기 무역 금융지원의 40%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China EXIM의 절반 이상의 지원이 일대일로와 연관된 국가들에 집중

- 특히 작년 중국은 혼합신용(수출신용과 개발금융을 결합한 상품)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쟁이 치열한 ECA 지형 특성상 경쟁기관들이 매칭 또는 포기할 것으로 관측
- 한편 금융위기는 유럽 ECA들의 상업은행과의 공조 붕괴 및 유럽, 아시아 기관들의 국가성장 지원을 위한 수출 지원 회귀, 수출금융에서 상업은행들의 역할을 바꾼 자본 규제 초래
- 최근 OECD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규범 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거나, 규범 해석의 폭을 넓힌 프로그램도 급증
 - * 중국 ECA들의 부상으로 과거 십 수년간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수출신용규범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하는 IWG(International Working Group) 설립 논의가 활발
 - 문제는 경쟁기관들이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도입할 시 공정한 경쟁 및 보조금 지원 금지를 추구하는 OECD 규범의 전체 틀이 흔들리는 결과 초래 가능성
- 과거 10년간 중국 ECA들은 발전을 거듭하며 상당한 규모의 Tied 및 Untied 금융을 제공해 왔는데 이로 인해 다음의 결과 야기
 - 1) 일본 및 한국 ECA들이 중국 ECA모델과의 경쟁을 위해 투자 및 Untied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

※ Untied & Market Window(10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China*	4.0	3.3	5.6	4.5	3.9
Korea	2.7	3.5	8.4	7.7	6.3
Japan**	5.2	3.1	2.8	1.3	1.4
Other OECD	13.0	14.0	7.0	4.0	8.0
TOTAL	24.9	23.9	23.8	17.5	19.6

*The Chinese ECAs do not report their untied and market window activity in their annual reports or international forums. China's activity is therefore estimated to be half the total Japanese and Korean activity. This conservative assessment is based on EXIM's experience encountering this type of financing in the marketplace.

**Japan's 2015 figure only includes JBIC.

2) 유럽 ECA들도 아시안 ECA들의 지원조건을 매칭하기 위해 특정 거래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

- (프) Coface(민간)의 보증을 Bpifrance(정부) 보증으로 전환하였고, Bpifrance의 익스포저를 최대 390억 달러까지 증액
- (영) UKEF는 작년 유로화 직접대출 프로그램 및 현지화 통화 대출 대상을 확대하였고, 최대 익스포저 한도도 2배 증액(680억 달러)
- (독) Euler Hernes는 정치/상업리스크 커버를 100%로 증액, Untied program 도입 검토, Content Policy 변경(외산비율 49%까지 허용)

3) 결과적으로 타국 ECA 및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갖기 위해, 기관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게 되는 현상 발생

- 러시아 EXIAR은 수출 관련 러시아내 사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Yamal LNG에 40억불 지원
- 인도 EXIM은 신규 파이낸싱 수단을 도입하여 국산 Content 75% 이상의 전략 사업에 양허성 자금 지원 시작
- 영국, 네덜란드 등 최소 4개의 유럽 ECA들이 운전자본 및 Supply Chain 프로그램 도입 추진 중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가 야기한 ECA 사회에 대한 주요한 영향은 아래와 같음

- 1) 보험기관 위주의 유럽 ECA들이 더 이상 민간 상업은행들의 편당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적금융기관들이 발생
 - 2016년 중 ECA 커버부 변동금리 지원 거래의 규모는 고정금리 지원 거래 규모를 훨씬 초과

2)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수출을 성장의 중요한 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국가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ECA 기능을 강화

3) 금융위기의 여파로 민간 상업은행은 강화된 Basel III 규범을 준수하게끔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자본 확충 및 자산 부채의 만기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 등 처리 필요

- 대형민간 상업은행들의 장기 수출금융거래 편딩 제공자 및 비투자등급 위험 인수자로서의 역할이 약화

- * 일부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5년 내 장기 수출거래에서의 동 은행들의 역할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 동 추세는 지난 수년간 서서히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났던 2016년에도 지속

- 대규모 리스크 경감자로서의 민간 수출금융 보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ECA가 감당해야 하는 기간과 위험 갭 비율도 증가

□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보다 ECA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수출을 성장과 연계시키는 국가들의 증가로 인해 향후 ECA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